유통가, 오프라인 강점 십분 활용… "예술+공간 만나세요"

예술·공간 접목, 체험공간 인기
영감 선사… 새로운 소비로 연결
百서 유행, 복합쇼핑몰 등 번져
전시 테마 체험 팝업스토어 봇물

신세계까사 서래마을점에서 진행 중인 현대미술 작가 리차드 우즈의 전시회 '빅가든'./신세계까사

유통기업들의 오프라인 점포가 상품을 구매하는 공간이 아닌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중 유통가는 빠른 속도로 변했다. 그동안 성공 방정식으로 여겨지던 다품목·최저가는 온라인 채널들의 처절한 경쟁 속에서 오프라인 점포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고객을 '귀족'처럼 대하는 VIP 경험은 백화점 외 채널에서는 실행하기 어렵다. 이에 최근 오프라인 채널은 '영감을 주는 예술적인 공간'으로 방향키를 잡았다.

지난달 26일 신세계까사는 까사미아 서래마을점을 국내 가구업계 최초의 '아트살롱'으로 고쳐 열었다. 신세계까사는 지난달 초 까사미아 압구정점을 '이탈리안 아파트' 콘셉트로 새단장한 바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서래마을점은 외관과 내부 모두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리차드 우즈가 참여해 '공간 자체가 작품'을 지향했다. 4층 규모 점포는 1층에 소품, 조명 전문관과 카페 라운지, 2·3층에는 신세계까사 상품 쇼룸, 4층에는 전시관으로 꾸려졌다.

점포 메인은 4층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디자이너, 아티스트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과 창작 방향성을 보여주는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플랫폼 '아키텍트에디션'을 마련했다. 아키텍트에디션은 1년에 4회 이상의 전시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는 내년 1월 31일까지 리차드 우즈 국내 단독전시 '빅 가든'을 운영한다.

예술과 공간을 접목하는 시도를 통해 성공을 거둔 예도 있다. 호텔 파라다이스시티도 내년 3월26일까지 5개월간 따로 리조트 내에 마련한 예술전시공간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공간을 주제로 '스페이스 심포니'를 연다.

호텔 리조트 내 전시지만 고품격을 추구한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2017년 개점 당시부터 예술적 감성을 접목한 '아트테인먼트 리조트'라는 콘셉트로 열고 꾸준히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그 결과 1년만 120만 명이 방문했다.

예술을 공간에 접목하는 트렌드는 팬데믹 기간 중 괄목할 성장을 한 백화점 업계에서 시작됐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발생시키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미술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아트테크가 새 관심사로 떠오르자 백화점이 이를 받아들였다. 백화점 업계는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품 전시 및 경매, 유통까지 나섰다.

백화점 업계 전체가 미술시장에 뛰어든 후 복합쇼핑몰들이 뒤를 따랐는데 예술을 접목하는 방식은 다소 다르다. 복합쇼핑몰은 쇼핑을 위한 공간보다는 사람들의 나들이 장소 역할을 하는 만큼 아예 작품 전시를 공간에 접목했다. 전시공간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복합쇼핑몰은 팝업스토어나 공간 인테리어에 예술을 접목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은 지난 30일까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와 협업해 작품 전시와 체험형 팝업 행사를 동시에 선보이기도 했다. 'MELTING POINT전(展)' 전시에서 김하경, ㅠㅐㅠ, 나무13, 노이신, 성영은 등 9명의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한편 전시를 테마로 한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동시에 열었다.

업계관계자는 "예술소비 소비저변이 과거와는 크게 변했다. 화랑이나 전시회를 가서 작품을 관람하던 데에서 벗어나 공간 자체를 예술로 즐기고, 여기서 영감을 얻는 새로운 방식의 소비방식이 등장했다"며 "온라인 채널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가에서는 예술과의 접목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CPHI 출격… CDMO 경쟁력 부각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컨퍼런스〉

170개국, 2500개 이상 기업 참가
글로벌 수주전 총력… 유럽 공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컨퍼런스인 'CPHI 월드와이드 2022'에 참가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CPHI는 매년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돌아가며 개최하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업계 최대 행사로 올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현지시간 이달 1~3일 총 3일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전 세계 170개국에서 총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4만여명 이상이 전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년 행사를 제외하고 2018년부터 매년 단독 부스를 마련해 참석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장 메인 위치에 대규모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새로운 슬로건 '액셀러레이팅 엑설런스'을 공개하며 글로벌 고객 수주에 적극 나선다. '액셀러레이팅 엑설런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압도적 속도와 품질경쟁력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진출 10년만에 달성한 생산능력 1위 기업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부스 내 벽면에는 회사의 혁신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패널을 설치하고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제공해 CDMO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부각했다. 착공 후 23개월 만에 가동에 돌입하며 건설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한 4공장과 신규 이중항체플랫폼 'S-DUAL(에스-듀얼)TM'및 신약후보발굴플랫폼 '디벨로픽'은 월 그래픽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됐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브로셔와 영상이 담긴 테블릿을 제공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디지털 설문조사를 진행해 업계 수요와 트렌드 조사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부스 한 켠에는 미팅 키오스크를 마련,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 부스를 찾는 방문자에게 VIP 고객 전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전임상 결과 공개

15일 日 국제학회서 최초 공개

JW중외제약은 이달 15일부터 닷새 동안 일본에서 열리는 'Wnt 2022' 학회에서 Wnt 표적 탈모치료제 'JW0061'의 전임상 결과를 포스터 발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Wnt 학회는 'Wnt 신호전달' 분야의 전 세계 석학들과 연구자들이 최신 지견과 연구 결과를 교류하는 장이다. 올해는 Wnt 단백질이 발견된 지 40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학회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며, 아시아 최초로 효고현 아와지 유메부타이에서 열린다.

JW중외제약은 이번 학회에서 새롭게 규명한 JW0061의 작용기전(MoA)과 임상용 제제로 시험한 동물모델 효능평가 결과를 최초로 공개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국제 Wnt 학회에서 신약후보물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W0061은 탈모 진행 과정에서 감소하는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시켜 모낭 줄기세포와 모발 성장에 관여하는 세포의 분화 및 증식을 촉진시키는 혁신신약(퍼스트 인 클래스) 후보물질이다.

/이세경 기자

한미약품, 바젤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美 보스턴 CIC 이어 두번째 거점

한미약품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메카로 손꼽히는 스위스 바젤에도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거점을 마련했다.

한미약품은 유럽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스위스 바젤 이노베이션 파크(SIP)에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2020년 미국 보스턴 CIC에 거점을 마련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두 중심인 유럽과 미국의 이 거점들을 기반으로 선진 제약바이오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을 확대하고, 라이선스 인 앤 아웃(IN & OUT) 파트너십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스위스 바젤은 로슈, 존슨앤존슨, 바이엘, 론자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700여개의 생명과학 및 바이오텍 회사들이 모여있는 유럽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다. 바젤에서는 3만1000명 이상의 산학 연구인력이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선도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이화의료원-카카오헬스케어 스마트병원 구축 업무협약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마곡동 이대서울병원에서 카카오헬스케어와 '환자중심 스마트 병원 구축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김한수 전략기획본부장, 조도상 데이터사업단장 등 의료원 관계자와 황희 대표, 윤기윤 부사장 등 카카오헬스케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환자중심 스마트병원 구축 ▲의료 빅데이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첨단시스템 구축 ▲스마트 의료 시스템 개발 등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이세경 기자

일양약품 고함량 활성비타민 '비파인정'

일양약품은 고함량 활성형 비타민 벤포티아민 95㎎과 비스벤티아민 5㎎이 함유된 고함량 기능성 비타민 복합제인 '비파인정(사진)'을 출시했다.

일양약품의 '비파인정'은 활성형 비타민인 벤포티아민과 비스베티아민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하루 한 알로 에너지 및 육체 피로 회복에 탁월 효과가 있는 고함량 기능성 비타민 복합제 제품이다.

비파인정의 주성분인 벤포티아민은 지용성 구조를 가진 활성형 비타민으로 체내 흡수량과 생체이용률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탄수화물을 비롯한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며 신경,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 또한, 비파인정은 비스벤티아민을 함유해 벤포티아민이 가지지 못한 BBB 뇌혈관장벽 통과라는 한계를 극복해 체내 티아민 농도를 올리는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이세경 기자

LG생활건강 빌리프 안티에이징 아이세럼 신제품

LG생활건강의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눈가 피부 탄력을 360도 밀착 관리하는 토털 안티에이징 아이 세럼 '유쓰 크리에이터 - 에이지 넉다운 아이 세럼(사진)'을 출시했다.

'유쓰 크리에이터 - 에이지 넉다운 아이 세럼'은 빌리프만의 안티에이징 노하우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유쓰 크리에이터 - 에이지 넉다운 밤' 라인에서 새롭게 출시된 토털 안티에이징 아이 세럼이다.

피부 탄력과 생기에 효과적인 페니워트 허브와 LG생활건강의 독자성분인 세드롤이 함유된 빌리프만의 탄력 개선 포뮬라인 '에이지 넉다운 포뮬라'를 함유했으며, 눈가 전방위 및 심층 탄력 개선 효과를 입증 받았다. 동시에 눈 밑 아이백 부위의 리프팅 개선에도 도움을 줘, 또렷하고 탄탄한 눈매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세경 기자